

지역경찰 4589명 ↑ 전복은 5명 증원

이용호 국회의원 “경찰인력 증원 수도권 집중, 지역경찰 증원은 외면” 비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경찰인력 2만명 증원’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지역경찰은 매년 현원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1만 2066명의 경찰이 증원됐다. 지역경찰을 제외한 경찰서 단위 이

상 경찰 현원은 7477명 증가해 6만 9430명으로 올해 경찰 정원 6만 6544명을 2886명 초과한 수준이다.

반면, 지역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등) 현원은 4만6176명으로, 2013년 4만1587명에서 4589명 증가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올해 지역경찰 정원 4만6533명에 비해 35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증원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은 2013년 이후 지역경찰 증원수가 1547명에 달

한 반면, 전복의 경우 증원수가 5명에 불과해 무려 300개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의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민생치안분야 우선배치가 원칙인데, 정작 지역경찰 증원에는 소홀하다”며 “일선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3년 이후 전국

지역경찰 증가율이 평균 11.03%인데 전북지방경찰은 0.24%, 고작 5명 증원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증원 계획은 중앙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미 정원이 초과된 관서에 인력증원이 집중됐는지, 지급액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기업현장에서 규제개선 풀어낸다

전주시, 23일까지 ‘찾아가는 규제개선 특(Talk)’ 추진

전주시가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현장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전주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기업인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현장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에 현실감 있게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특(Talk)’을 추진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주상공회의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IT업체 등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지원 및 기업환경개선 관련 애로사항, 중소기업들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청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요구사항을 ‘전주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당부서와 협의해 해결해 주거나,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이 주로 요구하는 △기업홍보 및 인력·자금 지원 △우수인력 확보방안 △설비 교체 △공장부지 마련 △인건 등 행정절차 간소화 △판로확보 등 기업경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규제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금융복지 지원 강화

금융복지상담소 개소 가계 빚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들 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 상담과 채무관리 상담 등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20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 33개 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20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시장과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 33개 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공무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식을 가졌다.

다. 또, 각종 금융 및 채무관리 상담을 통해 가계부채의 악순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소는 앞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재정 상황을 평가한 후 채무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소는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전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절차이행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가계부채 악성화를 막고 건전한 가정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일 전주도시 혁신센터 3층(완산구 물왕길 3길 29)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소장과 상담사 등 3명의 전문 인력을 통해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상담소에는 업무 개시 이후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의 상담 및 문의가 이어져 서비스 개시 8일 만에 전화상담 42건과 방문상담 20건 등 총 62건의 상담이 쇄도했고, 채무조정상담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실제, 상담소를 찾은 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간 가족의 채무로 인해 대부업체의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려왔으나 상담소의 채무변제조정을 통해 빚 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금융복지에 대한 이해와 상담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제윤경 국회의원의 금융복지 특강도 진행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 다가동 골목길, 벽화골목으로 거듭난다

24일 전북대 등 대학생 벽화그리기 봉사

전주시 다가동 골목길이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산뜻한 골목길로 새롭게 단장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 학생과 서울 덕성여대 학생 등 대학생 30여명과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오는 24일 다가동 골목길을 대상으로 담장도색 및 벽화그리기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봉사에 참여한 대학생과 주민들은 전주시가 도색재료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마을경관을 가꾸는 전주시 해피하우스 주민참여 사업을 통해

대동로에서 전주천동로로 이어지는 약 112m의 다가동 골목길의 낡은 담장을 도색하고 벽화를 그려 골목길을 산뜻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재능과 끼로 무장한 대학생들과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이번 해피하우스 사업에 참여한 만큼, 마을경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세대간 벽을 허물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 세계종교문화축제 성황리 열려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국내 4대 종교가 이웃종교와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며 마련한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가 20일 풍남문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세계종교문화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이날 여는 마당 행사에서는 세계종교문화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원불교 교무밴드의 공연과 기독교 관소리, 스님의 색소폰 연주 등 5개 팀의 종교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또, 4대 종단 대표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도문을 시민들과 함께 낭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개막식 행사에서는 백남준 세계종교평화회의회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종교지도자 만남과 가수 안치환의 개막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축제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종교어울마당에서는 전주시 청소년들이 마코토 유네스코 사무총장보와 함께 풍남문과 원불교 교동교당, 전주향교, 자민벽화마을, 오목대, 경기전 등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타악기를 연주하며 거리행진을 펼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를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5일간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 전북 지역 5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첫날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종교열린마당과 종교문화마당, 세계종교포럼, 종교어울마당, 달는 마당 등 총 여섯 마당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